

# 한국판 응시불안평가척도(K-GARS)의 타당화 연구<sup>†</sup>

백 수정      이 장 한<sup>‡</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불안장애의 특징인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를 측정하는 응시불안평가척도(Gaze Anxiety Rating Scale)를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생 333명을 대상으로 응시불안평가척도와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함께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응시불안 하위척도는 3요인이었으며 응시회피 하위척도는 4요인으로, 주로 다수에게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응시불안을 느끼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평가 받는 상황에서 응시회피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불안평가척도의 전체 문항 및 하위 척도 모두 높은 수준의 내적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으며 사회불안과 관련된 다른 척도와도 높은 수렴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불안평가척도의 문항변별도와 응답자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다분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분석으로 문항변별도와 경계특성곡선 위치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이 높은 변별력을 보여 제거할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치료적, 연구적 장면에서 객관적인 관찰방법에 국한되어 측정되던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가 한국판 응시불안평가 척도를 통해 그 주관적 보고 또한 신뢰롭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사회불안, 응시불안, 응시회피, 요인분석, 다분문항반응이론

<sup>†</sup>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공공복지안전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M3A2A1051124).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장한,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751, E-mail:clipsy@cau.ac.kr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응시불안(gaze anxiety)과 의도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응시회피(gaze avoidance)는 심각한 위협을 지각했을 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감을 얻기 위한 회피적이고 예방적인 행동으로서 사회불안장애 증상 중 하나이다(Larsen & Shackelford, 1996; Salkovskis, 1991). 사회불안장애에서 불안은 회피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증상의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안은 그 증상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측정과 치료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Baker, Heinrichs, Kim, & Hofmann, 2002).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은 개인적으로 유의한 정보를 접하거나 대중 앞에서 발표 또는 대화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응시를 회피한다(Doherty-Sneddon & Phelps, 2005). 비록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응시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행동으로서 응시를 회피하지만, 이는 위협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며 자기점검 행동(self-monitoring)과 자기초점(self-focus) 경향을 증가시켜 사회불안장애의 증상을 유지 및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Calrk & Wells, 1995).

사회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정확히 지각하거나 눈맞춤을 통해 정서적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과정을 방해하는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Bruce & Young, 1986; Clark, 1999; Öhman, Lundquist, & Esteves, 2001; Salkovskis, 1991; Wells et al., 1995). 선행연구 결과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눈을 덜 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응시패턴이 상대방의 비언어적 반응을 관찰할 수 없게 하여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Horley, Williams, Gonsalvez, & Gordon, 2003; Moukheiber et al., 2010). 사회불안 측정도구인 Liebowitz 사회불안척도의 개발과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눈맞춤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항목이 대부분의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사회불안장애의 핵심적 특징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r et al., 2002; Safren et al., 1999; Schneier, Rodebaugh, Blanco, Lewin, & Liebowitz, 2011). 이처럼 사회불안장애의 측정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의 평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경험적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관찰만이 가능했을 뿐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응시불안과 응시회피를 다룰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는 연구와 치료 장면에서 심층적인 주관적 보고를 제공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 사회불안장애의 안전행동을 측정하는 질문지는 안전행동 질문지(김은정, 1999)와 미묘한 회피빈도검증 척도(구훈정, 양은주, 권정혜, 2012)가 있으며 두 척도에서 응시회피 및 응시불안을 평가할 수 있는 일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행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대응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사회불안 증상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적 또는 특정 상황의 안전행동의 평가가 아닌 개별 안전행동에 대한 평가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Plasencia, Alden, & Taylor, 2011).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불안의 안전행동을 측정하는 기존 질문지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행동 또는 사

회불안장애의 전반적인 안전행동을 측정하므로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의 수준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임상적 장면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불안장애의 핵심적 특징인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 평가는 연구적 측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회불안장애의 치료를 위해 치료 전후 과정에서 다뤄져야 함이 많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Kim, 2005; Plasencia et al., 2011; Wells et al., 1995), 이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사용은 다양한 장면에서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에 대한 개입효과를 확인하고 주관적인 불편감을 측정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상황에서 눈맞춤 시 느끼는 응시불안과 응시회피의 임상적 상관을 알아보고 치료 전후의 응시불안 및 회피 변화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시불안평가척도(Gaze Anxiety Rating Scale: GARS)가 개발되었다(Schneier et al., 2011). GARS는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응시불안과 응시회피의 정도와 이에 대한 인지적 특징 및 생애발달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사회불안장애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의 분류의 중요성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적 변인은 불안반응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사회불안장애 진단기준에서도 사회불안증상이 상황적 소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반응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불안의 측정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과 회피정도를 수량화한다(Schneier et al., 2011). 따라서 사회불안 증상으로서의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를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발하는 각 사회적 상황의 분

류와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를 느끼는 사회적 상황을 분류하고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타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한국판 응시불안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신뢰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척도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검사 문항이 참여자의 능력이나 특성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 문항에서 드러나는 참여자의 특성과 그 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응시불안평가척도의 타당성과 활용가능성은 이미 검증이 되었지만 외국에서 개발된 설문지의 타당성과 검사에서 드러나는 참여자의 특성은 한국인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응시불안평가척도의 원저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눈맞춤이 오히려 공격적 표현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장애의 증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의 측정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Schneier et al., 2011).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한국의 환경에 맞도록 재구성하고 타당화하기 위해서는 다분문항반응이론을 통한 문항변별도와 참여자 특성 파악의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문항의 특성과 참여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분석방법으로 이전까지는 주로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 CIT)이 사용되어져 왔으나 고전검사이론은 모든 참여자의 능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검사 문항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제기되어 왔다(임은영, 박장희, 권일, 송규림, 허선,

2004).

고전검사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검사 점수의 정확도와 심리학적 측정도구 각 문항의 변별도, 특성의 수준을 검증하는 정도, 응답지 구성의 효율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문항 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이 제안되었다(Cho & Matheny, 2008). 이전까지의 많은 검사는 진위 혹은 수행 여부와 같은 이분적 특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기존의 문항반응이론으로 분석이 가능하였으나 심리학 측정도구의 대부분은 인간의 행동특성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진위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측정이기 때문에 기존 고전검사이론이나 문항반응이론으로는 검사 문항이 인간행동 특성의 정도를 변별하는지, 검사에 반영된 참여자의 특성과 분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문항반응이론 중 다분문항반응이론(polytomous item response theory)은 이분적 측정 결과에 국한되어 사용되던 기존의 한계점을 벗어나 참여자의 특성을 정도에 따른 연속적 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론으로 심리측정 검사의 문항분석과 참여자능력 추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성태제, 199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분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일반 한국인 응시불안과 회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특성을 타당하게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을 가려내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한국판 응시불안평가척도를 타당화하여 국내 임상 장면 및 연구적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를 느끼는 사회적 상황의 요인구성을 파악한다. 둘째, 응시불안평가척도의 신

뢰성 검증 및 기존 평가척도와와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셋째, 다분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문항분석을 통해 나타난 일반 한국인 대학생의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 특성을 파악하고 변별도 높은 문항을 선별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파악한다.

## 방 법

### 참여자

서울 소재 C대학교에서 학부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33명(남자 124명, 여자 2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 전체 평균연령은 21.24세(표준편차=2.33)이며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1.68세(표준편차=2.43),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20.99세(표준편차=2.25)였다. 이들 중 25명에게 6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 측정도구

**응시불안평가척도(Gaze Anxiety Rating Scale: GARS).** Schneier 등(2011)이 사회적 상황에서 눈맞춤 시 느끼는 불안과 눈맞춤 회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GARS는 불안 및 회피 정도를 각각 0점(불안 없음, 회피 없음)에서 3점(심도 불안, 심도 회피)으로 평정되며 불안 점수, 회피 점수, 불안과 회피를 더한 총 점수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눈맞춤 시 느끼는 응시불안과 응시회피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Schneier 등(2011)의 연구에서 전체 점수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는 .95였으며 응시불안 하위척도의 경우 .88, 응시회피 하위척도는 .90이었다. 본 연구의 GARS 전체 점수 내적 일치도는 .93이었으며 응시불안 하위척도는 .88, 응시회피 하위척도는 .87이었다. 6개월 간격으로 측정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응시불안 하위척도( $r=.966, p<.001$ ), 응시회피 하위척도( $r=.941, p<.001$ ), 총 점수( $r=.954, p<.001$ ) 모두 유의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과 Clarke(1998)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겪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김향숙(2001)이 번안한 한국판 SIAS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며 내적 일치도는 .91이었다.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Liebowitz(1987)가 임상 집단의 비구조화 면접을 통해 사회불안을 느끼는 사회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였지만 자기 보고식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Greist, Kobak, Jefferson, Katzenick, & Chene, 1995).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려움 및 회피 정도를 각각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전혀 회피하지 않음)에서 3점(매우 불안함, 항상 회피함)으로 평정하며 본 연구는 유은승 등(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94였다.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와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각각 14문항씩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내적 일치도는 .94였다.

**사회공포증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척도로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거나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수행에 대한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김향숙(2001)이 번안한 한국판 SPS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며 내적 일치도는 .92였다.

**한국판 상태-특질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T).** Spielberger(1970)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상태불안과 특질불안을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가 각각 20문항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안한 한국판 상태-특질불안 척도 중 특질불안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되며 내적 일치도는 .71이었다.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 이지영과 권석만(2005)이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9문항과 자기몰입 21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적 일치도는 .96이었다.

**Beck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Beck(1996) 등이 우울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DSM-IV의 우울증 준거에 맞게 개정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에서 3점으로 평정된다. 본 연구는 김명식 등(2007)이 번안한 한국판 BDI-II를 사용하였으며 내적일치도는 .90이었다.

## 절차

GARS의 한국어판 제작을 위해 원저자인 Franklin R. Schneier에게 척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본 연구자들이 우리말로 번역한 후 임상심리전문 석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구사자가 역번역을 수행하였다. 원저자의 원본과 역 번역본을 영어 원어민 4명에게 비교하여 번역의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자료분석

한국 표본에서 GARS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윈도우형 SPSS 18.0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6개월 후 시행된 GARS 재검사 점수와 이전 시행의 점수 간 상관분석을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GAR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법과 오블리민 회전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GARS와 다른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GARS의 응시불안과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한 후, 각 하위척도의 요인구조별로 XCalibre 4.2.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요인구조의 특성과 문항에 반영된 참여자의 특성과 분포를 추정하였다.

## 결 과

### 요인분석

GARS의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KMO값과 Bartlett의 유의도 검정이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응시불안평가척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GARS의 요인에 대한 문항의 요인부하계수(factor loading)가 .40 이

표 2. GARS 척도의 KMO와 Bartlett 검정

	Kaiser-Meyer-Olkin 척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응시불안 하위척도	.903	1919.87*
응시회피 하위척도	.884	1835.95*

\* $p < .001$ .

상이며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계수의 차이가 .10 이상인 기준에 근거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Tedesch & Calhoun, 1996), 응시불안 하위척도 분석에서 전체 문항 중 3문항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요인구성에서 제외하였다.

응시불안 하위척도는 3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응시회피 하위척도는 4요인이 추출되었다. 응시불안 하위척도 요인 1은 ‘다수 앞에서 주목받는 상황’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치는 6.178로 전체변량의 19.077%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타인과 대화하는 상황’의 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1.286으로 전체변량의 16.374%를 설명하

였다. 요인 3은 ‘호감 있는 타인에게 평가받는 상황’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치는 1.242로 전체변량의 15.767%를 설명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총 3문항은 요인구성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았다. 응시불안 하위척도의 3요인의 총 설명량은 51.218%로 나타났으며 표 3에 응시불안 하위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요인 1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5.843으로 전체변량의 19.876%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호감 있는 타인에게 평가받

표 3. 응시불안 하위척도 요인구조

문항	회전된 요인 부하량		
	1	2	3
3. 회의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	.808	.147	.196
4. 몇 사람과의 토론에서 말하는 것	.792	.132	.079
1. 발표하는 것	.690	.062	.158
2. 모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584	.524	.113
15.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는 일반적 상황	.469	.340	.251
5. 물건 구매 시 계산원과 상대하는 것	.089	.704	.182
7. 길거리에서 지인을 만나 인사하는 것	.187	.667	.098
13. 가족과 일상을 이야기 하는 것	.107	.643	-.031
8.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320	.519	.370
17. 칭찬을 받는 것	.035	.487	.385
11.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상황	.071	.053	.782
9. 매력 있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	.164	.186	.749
12. 나의 업무를 상사 또는 선생님에게 평가 받는 것	.290	.080	.612
10. 잘 모르는 사람을 데이트 또는 사교활동에 초대하는 것	.336	.400	.509
6. 자신이 소개되는 상황	.452	.277	.420
16.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498	.240	.407
14.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일반적 상황	.294	.390	.241
고유치	6.178	1.286	1.242
설명 변량(%): 51.218	19.077	16.374	15.767
내적 일치도	.836	.713	.673

주) 요인 1: 다수 앞에서 주목받는 상황, 요인 2: 타인과 대화하는 상황, 요인 3: 호감 있는 타인에게 평가받는 상황.

는 상황'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1.459로 전체변량의 13.563%를 설명하였다. 요인 3은 '타인과 대화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1.223으로 전체변량의 12.042%를 설명하였다. 요인 4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나타내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1.000으로 전체변량의 10.555%를 설명하였다.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4요인의 총 설명량은 43.670%였는데, 표 4에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구성타당도: 다른 사회불안척도와의 상관분석

사회불안에서 응시회피는 사회적 상황에서 눈 맞춤을 회피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으며(Greist, 1995; Öhman, 1986), 안구운동측정기기 등을 통한 객관적 관찰연구에서는 사람으로 제시된 자극의 눈 주위 영역에 대한 응시 또는 회피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였다. 기존 사회불안평가척도 중 일부 문항(사회적 상호불안 척도 2번, 사회공포증 척도 16, 20번, Liebowitz 사회불안척도 19번 등)

표 4. 응시회피 하위척도 요인구조

문항	회전된 요인 부하량			
	1	2	3	4
4. 몇 사람과의 토론에서 말하는 것	.826	.046	.135	-.005
3. 회의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	.818	.162	.171	.026
1. 발표하는 것	.691	.209	.011	.164
16.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618	.144	.250	.134
2. 모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590	.068	.458	.169
15.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는 일반적 상황	.500	.301	.173	.258
11.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상황	.005	.758	.124	.057
9. 매력 있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	.147	.723	.359	.006
12. 나의 업무를 상사 또는 선생님에게 평가 받는 것	.261	.588	.072	.032
17. 칭찬을 받는 것	.170	.491	-.056	.486
6. 자신이 소개되는 상황	.383	.450	.175	.245
7. 길거리에서 지인을 만나 인사하는 것	.077	.165	.754	.025
10. 잘 모르는 사람을 데이트 또는 사교활동에 초대하는 것	.295	.194	.640	.260
8.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338	.136	.606	.219
13. 가족과 일상을 이야기 하는 것	.066	-.057	.121	.830
5. 물건 구매 시 계산원과 상대하는 것	.084	.121	.379	.595
14.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일반적 상황	.295	.361	.095	.441
고유치	5.843	1.459	1.223	1.000
설명 변량(%): 43.670	19.876	13.563	12.042	10.555
내적 일치도	.834	.721	.668	.552

주) 요인 1: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상황, 요인 2: 호감 있는 타인에게 평가받는 상황, 요인 3: 타인과 대화하는 상황, 요인 4: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황.

은 각 상황에서 느끼는 눈맞춤 시 느끼는 불안 및 회피의 정도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GARS의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의 구성개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GAR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불안 측정도구인 SIAS, LSAS, SADS, SPS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불안장애가 우울, 특질불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Catherine & Heckler, 2011; Shirayama et al., 2013)의 결과를 바탕으로 GARS와 한국판 STAI-T와 BDI-II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자기초점적 주의는 사회불안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변인으로 고려되는데(이지영, 권석만, 2009), 원저자(Schneier et al., 2011)의 GARS 문항 중 자의식(self-conscious)에 관한 문항(20번)이 포함되고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불안환자가 눈맞춤에 대한 자의식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가 두드러진다는 경향이 보고된 바, SDSAS와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결과, 응시불안척도의 응시불안 하위척도와 응시회피 하위척도는 유의미한 높은 정적 상관관계( $r=.997, p<.001$ )를 보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응시불안척도의 각 하위척도는 우울 및 특질불안과 다소 약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초점적 주의성향 척도를 제외한 사회불안척도들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응시불안평가척도가 사회불안의 증상 및 안전행동 중 하나로 여겨지며 다른 사회불안 변인과는 속성을 공유하나 자기초점적 주의와는 관련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분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분석과 특성 추정**

GARS의 응시불안과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참여자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응시불안과 응시회피를 보일 뿐만 아니라 두 하위척도와 다른 사회불안 설문지와의 상관관계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두 하위척도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하는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문항평가를 실시하였다. 문항평가에서는 문항의 변별도가 높으며 경계특성곡선의 위치모수 간격이 유사한 문항을 좋은 문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Baker, 1992). 다분문항반응이론에서 문항변별도는 문항이 참여자 특성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65 ~ 1.34일 때 적절한 수준으로, 1.35 ~ 1.69일 때 높은 것으로, 1.70 이상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성태제, 2001). 표

표 5. 응시불안척도와 다른 척도와의 상관계수

	SIAS	LSAS 회피	LSAS 불안	SADS	SPS	STAI-T	SDSAS	BDI-II
GARS 불안	.651*	.694*	.692*	.551*	.563*	.373*	.335*	.352*
GARS 회피	.648*	.686*	.683*	.542*	.562*	.374*	.336*	.360*

\* $p<.001$ , GARS: Gaze Anxiety Rating Scale, SIAS: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LSAS: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SADS: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PS: Social Phobia Scale, STAI-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DSAS: 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BDI-II: Beck Depression Inventory-II.

표 6. 응시불안 하위척도 문항모수 추정치

요인	문항	문항 변별도	경계특성곡선의 위치모수		
			0	1	2
요인1	1. 발표하는 것	0.727	-1.465	0.680	2.548
	2. 모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1.158	0.189	1.939	2.896
	3. 회의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	1.132	-0.654	1.258	2.904
	4. 몇 사람과의 토론에서 말하는 것	0.943	-0.636	1.324	2.885
	10. 잘 모르는 사람을 데이트 또는 사교활동에 초대하는 것	1.114	-0.716	1.038	2.406
	15.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는 일반적 상황	0.941	0.137	2.189	3.977
요인2	5. 물건 구매 시 계산원과 상대하는 것	0.867	1.426	3.143	3.909
	7. 길거리에서 지인을 만나 인사하는 것	0.882	1.333	2.619	3.842
	8.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1.068	-0.493	1.496	3.024
	13. 가족과 일상을 이야기 하는 것	0.748	1.963	3.965	4.219
요인3	17. 칭찬을 받는 것	0.777	0.910	2.990	4.208
	9. 매력 있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	0.841	-0.778	1.232	3.293
	11.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상황	0.706	-0.068	1.880	4.156
요인4	12. 나의 업무를 상사 또는 선생님에게 평가 받는 것	0.782	-1.387	0.678	2.819
	6. 자신이 소개되는 상황	1.016	-0.616	1.319	3.058
	14.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일반적 상황	0.875	1.084	3.494	4.671
	16.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1.021	-0.671	1.219	3.054

표 7. 응시회피 하위척도 문항모수 추정치

요인	문항	문항 변별도	경계특성곡선의 위치모수		
			0	1	2
요인1	1. 발표하는 것	0.818	-0.930	1.081	2.855
	2. 모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1.102	0.329	2.222	3.291
	3. 회의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	1.152	-0.256	1.497	3.036
	4. 몇 사람과의 토론에서 말하는 것	0.960	-0.102	1.641	3.073
	15.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는 일반적 상황	0.976	0.506	2.483	4.086
	16.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0.929	-0.279	2.054	3.057
요인2	6. 자신이 소개되는 상황	0.878	0.027	2.048	3.500
	9. 매력 있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	0.751	-0.269	1.551	3.363
	11.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상황	0.546	0.336	2.897	5.232
	12. 나의 업무를 상사 또는 선생님에게 평가 받는 것	0.637	-0.366	1.745	4.041
요인3	17. 칭찬을 받는 것	0.673	0.770	2.977	3.905
	7. 길거리에서 지인을 만나 인사하는 것	0.722	1.480	3.199	4.281
	8.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0.885	-0.213	1.729	3.200
요인4	10. 잘 모르는 사람을 데이트 또는 사교활동에 초대하는 것	0.962	-0.386	1.451	2.553
	5. 물건 구매 시 계산원과 상대하는 것	0.701	1.474	2.987	4.920
	13. 가족과 일상을 이야기 하는 것	0.624	2.098	3.604	5.372
요인4	14.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일반적 상황	0.814	1.104	3.147	4.607

6과 표 7은 두 하위척도의 문항변별도와 경계특성곡선의 위치모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하위척도 모두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문항변별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경계특성곡선의 위치모수는 참여자의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 수준을 고르게 반영하는 정도의 지표인데, 문항변별도와 함께 고려했을 때 응시불안 하위척도에서는 1번, 3번, 6번, 7번, 9번, 12번, 15번, 16번이 좋은 문항으로, 응시회피 하위척도에서는 1번, 3번, 9번이 좋은 문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과 같이 GARS의 추정 정확성을 의미하는 검사정보함수값을 살펴보면, 응시불안 하위척도는 -.5부터 3.0까지 비슷한 값을 보였고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도 .85, .71, .67로서 응시불안 수준을 신뢰롭게 측정하였다. 응시불안 하위척도에서 요인1이 참여자 특성을 가장 정확히 추정하였고, 사회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응시불안의 정도를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자의 연구(Schneier et al., 201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GARS가 임상장면에서 사회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응시불안이나 응시회피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척도를 개발한 목표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응시회피 하위척도는 요인4를 제외하

고 -.5부터 3.0까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도 .83, .72, .67로서 응시회피 수준을 신뢰롭게 측정하였다. 응시회피 요인1이 정보함수값이 가장 높아 다른 요인에 비해 참여자 특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요인4는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정보함수값과 신뢰도를 보여 추정 정확성이 가장 낮았다.

**서술항목 분석**

응시불안평가척도는 총 8문항의 서술항목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눈맞춤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18번, 19번, 21번, 22번 문항에서는 응시불안과 응시회피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지만, 눈맞춤에 대해 스스로 의식하는지 여부를 묻는 20번 문항에서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의식한다고 보고하였고 사회적 관계에서 눈맞춤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23번 문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 사회불안 임상집단을 대상으

표 8. 응시불안평가척도 요인의 검사정보함수와 신뢰도

척도 \ $\theta$	-2.0	-1.5	-1.0	-.5	0	.5	1.0	1.5	2.0	2.5	3.0	Cronbach's $\alpha$	
응시불안	요인1	1.79	3.21	4.92	5.87	5.74	5.73	6.25	6.36	6.31	6.57	6.12	0.85
	요인2	0.55	0.83	1.09	1.36	1.82	2.36	2.77	2.86	2.82	2.94	3.05	0.71
	요인3	0.82	1.35	2.10	2.60	2.60	2.58	2.82	2.64	2.45	2.70	2.46	0.67
응시회피	요인1	0.90	1.72	3.08	4.41	4.50	4.12	4.47	4.80	4.69	5.03	4.95	0.83
	요인2	0.74	1.27	1.92	2.41	2.55	2.55	2.60	2.64	2.67	2.71	2.62	0.72
	요인3	0.76	1.23	1.55	1.54	1.50	1.68	1.91	1.98	1.96	1.82	1.48	0.67
	요인4	0.23	0.31	0.40	0.49	0.56	0.61	0.63	0.64	0.64	0.65	0.65	0.55

표 9. 서술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M(SD)
18. 눈맞춤을 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눈맞춤을 피한다.	.60(.645)
19. 불안 때문이 아니라 단지 눈맞춤이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에 눈맞춤을 피한다.	.40(.686)
20. 눈맞춤을 할 때 나는 내 스스로를 의식하는 것을 느낀다.	1.17(.851)
21.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많이 응시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한다.	.66(.824)
22. 나는 얼마나 눈맞춤을 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69(.795)
23. 눈맞춤은 내 사회적 관계와 업무 관계에서 중요하다.	1.87(.959)

로 GARS가 수행된다면 서술항목의 평균은 올라갈 수 있으며 본 연구에 기술된 평균이 일반 대학생의 점수 기준치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4번 문항과 25번 문항은 눈맞춤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보고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에 활용된 333명의 참여자 중 45.95%에 해당하는 154명의 참여자가 두 문항에 대해 응답을 하였으며 참여자가 보고한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가 처음 나타난 평균 나이는 14.70(SD=1.41)세였다. 25번 문항은 과거에 비해 현재 느끼는 응시불안과 응시회피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평균값은 1.85(SD=1.33)으로 과거와 현재의 응시불안과 응시회피 정도에 큰 차이가 없거나 약간 나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응시불안평가척도의 국내활용을 위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요인구조를 확인한 후 문항분석을 통해 참여자 특성을 추정하여 척도의 타당성과 임상적 활용기준을 제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 한국판 GAR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를 분석한 결과, 응시불

안 하위척도는 .88, 눈맞춤 회피 하위척도는 .90, 전체는 .95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 안정적인 측정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당도 검증에 위해 한국판 GARS의 각 하위척도 점수와 사회불안장애 관련 척도 점수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 사회불안장애와 그 증상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원저자(Schneier et al., 2011)는 응시회피가 사회-정서적(social-emotional) 측면에서만 나타나는지 혹은 사회불안과 높은 공병률을 보이는 우울과도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GARS와 우울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원저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한국판 GARS와 우울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응시불안과 응시회피가 우울과는 상관없는 사회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나타나는 증상임을 확인하였다.

GARS의 두 하위척도의 상관관계는 원저자의 결과( $r=.92, p<.001$ )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정적 상관관계( $r=.997, p<.001$ )를 보였다. 두 하위척도 구성의 높은 상관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시선을 짧게 제시하는 실험상황에서는 과경계(hypervigilance)의 응시경향 후 나타나는 응시회피만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오랜 눈맞춤을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응시 회피와 함께 응시불안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둘은 상호적 관계로 여겨지고 있다(Moukheiber et al., 2010; Mogg, Bradley, De Bono, Painter, 1998; Wieser, Pauli, Aplers, & Mühlberger, 2008). 또한 원저자(Schneier et al., 2011)는 GARS 개발 목적이 응시불안과 응시회피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임상 장면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각 하위척도의 양적측정임을 밝히는 바, 이 두 하위척도의 별개 측정은 그 활용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비록 원저자가 GARS를 요인분석하지 않았으나 사회불안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과 회피의 양적측정을 통해 평가된다(Schneier et al., 2011)는 점에 근거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시불안 하위척도는 3요인, 응시회피 하위척도는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두 하위척도는 각기 다른 요인구조를 보였으나 요인의 문항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응시불안 하위척도의 요인3이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요인4 문항을 대부분 포괄하여 매우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사회불안에 대한 응시불안과 응시회피의 양적측정이라는 응시불안평가척도의 목적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응시불안과 응시회피 하위척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설명량을 보이는 사회적 상황은 각 하위척도의 요인1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의견을 말하며 주목을 받는 상황으로서 주로 발표불안(public speaking anxiety)을 유발한다. 사회불안 장애 환자의 약 70.3%가 발표불안을 겪는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점을 감안할 때(Kessler, Stein, & Berglund, 1998; Knappe et al., 2011), 각 하위

척도 요인1의 문항구성과 설명량이 응시불안과 응시회피가 나타나는 상황과 그 정도를 타당하게 대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분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분석에서 응시불안과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요인1은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문항변별도와 정보검사함수 값을 보였는데, 이는 GARS가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여러 상황 중에서도 발표불안과 같은 타인의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응시불안과 응시회피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응시불안 하위척도의 요인3과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요인2는 타인에게 평가받는 상황으로 명명되었는데, 이 두 요인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함께 부정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타인의 반응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사회불안의 특성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의 핵심적 기제라는 인지행동모델(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과 함께, 긍정적 평가 또한 사회불안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불안 성향을 지닌 사람은 긍정적 피드백 후 다음 수행에서 부정적 평가로 바뀔 것을 지나치게 염려해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도 불안을 보이게 된다(Weeks, Heimberg, & Rodebaugh, 2008).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정적 평가가 아닌 일반적 평가 상황을 설명하는 ‘매력 있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 ‘나의 업무를 상사 또는 선생님에게 평가 받는 것’, ‘칭찬받는 것’ 등의 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어, GARS가 전반적 평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응시불안과 응시회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응시불안 하위척도의 요인2와 응시회피 하위척

도의 요인3, 4는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대화를 교환하는 상황으로 명명되었는데, 다분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분석에서 다른 요인에 비해 변별도와 정보검사합수 값이 낮았다. 특히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요인 4는 요인분석과 다분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분석에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요인의 정보검사합수 값의 변화 추이는 참여자의 응시불안이나 응시회피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요인 4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응시회피 증상이 적은 -2.0에서 0까지의 수준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응시회피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5부터 3.0까지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한 추정 정확성은 매우 고른 값을 보여 이 대상에 대한 추정 정확성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ARS의 응시회피 하위척도의 요인 4의 낮은 신뢰도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참여자의 응시회피 수준에 따라 이를 추정하는 정확성의 편차가 있다는 요인의 특징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사회불안장애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면,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의 GARS 변별도와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 특성 추정의 정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GARS를 활용할 시 응시회피 요인4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평정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요인분석결과 총 3문항이 응시불안의 3요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응시불안의 요인구성에서는 제외하였다. 비록 요인구성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였지만 세 문항은 적지 않은 요인 부하량 및 문항변별도를 나타내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를 타당하게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판단되어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다만, 응시불안하위척도의 요인별 점수를 산출해야 할 경우 이 두 문항은 산출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상관분석을 통해 GARS가 사회불안 속성으로서의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상관분석은 문항이 참여자의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의 특징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항의 평정 수준이 일반집단과 임상집단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수준에 속한 참여자를 더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과 다분문항반응이론의 문항분석을 통해 GARS의 변별도와 참여자의 특성 추정의 정확성을 파악해 타당화하여 척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측정도구의 참여자 특성수준과 변별도를 측정하는 것이 도구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는 주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에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연구는 다분문항반응이론의 문항분석을 통해 GARS에 반영된 한국 대학생의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 특성을 파악하고 척도의 특성추정 정확성과 변별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는 타인에 의해 쉽게 관찰되며 기능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불안에 대한 치료와 경험적 연구에서 참여자의 응시불안 및 응시회피 수준에 대한 주관적 보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불안의 치료와 연구 분야에서 GARS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원자자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GARS가 임상적 활용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과 본 연구결과에서 임상집단의 응시불안과 응시회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문항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집단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구훈정, 양은주, 권정혜 (2012). 사회불안 상황과 관련된 미묘한 회피 빈도 검출 척도(SAFE)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693-712.
- 김명식, 이임순, 이창선 (2007). 한국판 BDI-II의 타당화 연구 I: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997-1014.
- 김은정 (1999). 사회공포증집단의 사회적 자기처리 및 안전행동. 미발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 한국 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 69-75.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태제 (1998). 다분문항반응이론(등급반응모형)에 의한 학구적 실패내성척도의 문항분석과 참여자 특성 추정. 교육심리연구, 12(2), 203-218.
- 성태제 (2001). 문항 반응이론의 이해와 적용. 파주: 교육과학사
- 유은승, 안창일, 박기환 (2007). 한국판 Liebowitz 사회불안척도(LSAS)의 요인구조 및 진단적 유용성 - 대학생 집단과 사회공포증환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51-270.
- 이지영, 권석만 (2009). 사회불안과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의 관계. 인지행동치료, 9(1), 39-55.
- 이지영, 권석만 (2009).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의 개발: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51-464.
- 임은영, 박장희, 권일, 송규립, 허선 (2004).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의사국가시험 문항 분석. 보건의료교육평가, 1(1), 67-76.
- 최정훈, 이정윤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21-47.
- Cho, H., & Matheny, K. B. (2008). The use of Korean vers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with adolescents: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583-600.
- Baker, F. B. (1992). *Item response theory: Parameter estimation techniques*. New York: Marcel Dekker, Inc.
- Baker, S. L., Heinrichs, N., Kim, H. J., Hofmann, S. G. (2002).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as a self-report instrument: A preliminary psychometric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6), 701-715.
- Beck, A. T., Steer, R. A., & Brown, G. K. (1996). *Beck Depression Inventory* (2nd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Clark, D. M. (1999). Anxiety disorders: Why they persist and how to treat them.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S5-S27.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Heimberg, M. Liebowitz, D. A. Hope, & F. Schein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Guilford Press.

- Doherty-Sneddon, G., & Phelps, F. G. (2005). Gaze aversion: A response to cognitive or social difficulty? *Memory & Cognition*, *33*(4), 727-733.
- Farabee, D. J., Holcom, M. L., Ramsey, S. L., & Cole, S. G. (1993). Social anxiety and speaker gaze in a persuasive atmosphe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7*(4), 365-376.
- Greist, J. H. (1995). The diagnosis of social phobi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5*(Suppl.5), 5-12.
- Greist, J. H., Kobak, K. A., Jefferson, W., Katzlenick, D. J., & Chene, R. L. (1995). The clinical interview.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Guilford Press.
- Horley, K., Williams, L. M., Gonsalvez, C., & Gordon, E. (2003). Social phobics do not see eye to eye: A visual scanpath study of emotional expression processing. *Anxiety Disorders*, *17*, 33-44.
- Öhman, A. (1986). Face the beast and fear the animal: animal and social fears as prototypes for evolutionary analysis of emotion. *Psychophysiology*, *23*(2), 123-145.
- Öhman, A., Lundquist, D., & Esteves, F. (2001). The face in the crowd revisited: A threat advantage with schematic stimuli.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381-396.
- Kessler, R. C., Stein, M. B., & Berglund, P. (1998). Social phobia subtype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 613-619.
- Kim, E. J. (2005). The effect of the decreased safety behaviors on anxiety and negative thoughts in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19*, 69-86.
- Knappe, S., Beesdo-Baum, K., Fehm, L., Stein, M. B., Lieb, R., & Wittchen, H. U. (2011). Social fear and social phobia types among community youth: Differential clinical features and vulnerability factor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5*(1), 111-120.
- Larsen, R. J., & Shackelford, T. K. (1996). Gaze avoidance: Personality and social judgments of people who avoid direct face-to-face conta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6), 907-917.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of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ogg, K., Bradley, B. P., De Bono, J., Painter, M. (1998). Time course of attentional bias for threat information in non-clinic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297-303.
- Moukheiber, A., Rautureau, G., Perez-Diaz, F., Soussignan, R., Dubal, S., Jouvent, R., & Pelissolo, A. (2010). Gaze avoidance in social phobia: Objective measure and correlat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 147-151.
- Plasencia, M. L., Alden, L. E., & Taylor, C. T. (2011). Differential effects of safety behavior subtypes in social anxiety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 665-675.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741-756.
- Safren, S. A., Heimberg, R. G., Horner, K. J., Juster, H. R., Schneier, F. R., Liebowitz, M. R. (1999). Factor structure of social fears: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 *13*(3), 253-270.
- Salkovskis, P. M. (1991). The importance of behaviour in the maintenance of anxiety and

- panic: A cognitive account. *Behavioural Psychotherapy*, 19, 6-19.
- Schneier, F. R., Rodebaugh, T. L., Blanco, C., Lewin, H., & Liebowitz, M. R. (2011). Fear and avoidance of eye contact in social anxie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52, 81-87.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Test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Tedesch, R., & Calhoun, I. G., (1996).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2.
- Walters, K. S., & Hope, D. A. (1998). Analysis of social behavior in individuals with social phobia and nonanxious participants using a psychological model. *Behavior Therapy*, 29, 387-407.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Weeks, J. W., Heimberg, R. G., & Rodebaugh, T. L.(2008).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Assessing a proposed cognitive componen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 44-55.
- Weeks, J. W., Heimberg, R. G., & Heuer, R. (2011). Exploring the role of behavioral submissiveness in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0(3), 217-249.
- Wells, A., Clark, D. M., Salkovskis, P., Ludgate, J., Hackmann, A., & Gelder, M. (1995). Social Phobia: The role of in-situation safety behaviors in maintaining anxiety and negative beliefs. *Behavior Therapy*, 26, 153-161.
- Wieser, M. J., Pauli, P., Aplers, G. W., Mühlberger, A. (2008). Is eye contact really threatening and avoided in social anxiety? An eye-tracking and psychophysiology study. *Journal of Anxiety Disorder*, 23(1), 93-103.
- 원고접수일: 2014년 11월 14일  
 논문심사일: 2014년 12월 4일  
 게재결정일: 2015년 7월 28일

#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Gaze Anxiety Rating Scale(K-GARS)

Soojung Baek                      Jang-Han Le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Gaze Anxiety Rating Scale (K-GARS) with factor analysis and polytomous item response theory(polytomous IRT). A total 333 university student were asked to respond to K-GARS and questionnaires to measure social anxiety tendenc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four factor structures in gaze avoidance dimension and gaze anxiety dimension, consisting of three factor structure with a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convergent validity. People mainly reported gaze avoidance in the public speaking or evaluative situation. They felt gaze anxiety when they were engaged in public attention. Polytomous IRT revealed that all items had appropriate discrimination to measure the trait of gaze avoidance and gaze anxiety accurately. Therefore, no item was eliminated from the original GARS. This suggested that Korean version of GARS could be extended from the restricted study field of gaze avoidance and gaze anxiety where empirical data are mostly studied. It could also be practically used in clinical context with a high reliability.

*Keywords: social anxiety, gaze anxiety, gaze avoidance, factor analysis, polytomous item response theory*

부록 1. 응시불안 평가척도

※ 다양한 상황에서 눈맞춤 시 불안을 느끼거나 눈맞춤을 회피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간 눈맞춤 할 때 느낌이나 행동을 토대로 평가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최근 겪지 않았다면 아래 상황에서 눈맞춤 시 예상되는 자신의 불안과 회피를 상상해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상황 자체의 불안을 평가하지 마시고 상황 하에서 눈맞춤에 대한 불안과 회피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회피 모두 평가 점수를 입력하십시오.

번호	질문내용	눈맞춤 시 불안	눈맞춤 회피
		0 불안없음 1 경도 불안 2 중중도 불안 3 심도 불안	0 회피없음 1 경도 회피 2 중중도 회피 3 심도 회피
1	발표 하는 것		
2	모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3	회의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		
4	몇 사람과의 토론에서 말하는 것		
5	물건 구매 시 계산원과 상대하는 것		
6	자신이 소개되는 상황		
7	길거리에서 지인을 만나 인사하는 것		
8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9	매력 있는 상대와 대화하는 것		
10	잘 모르는 사람을 데이트 또는 사교활동에 초대하는 것		
11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상황		
12	나의 업무를 상사 또는 선생님에게 평가 받는 것		
13	가족과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14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일반적 상황		
15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는 일반적 상황		
16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17	칭찬을 받는 것		

서술항목

아래의 추가항목을 평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0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조금 그렇다.
- 2 - 보통 그렇다.
- 3 - 매우 그렇다.

- 18. \_\_\_\_ 눈맞춤을 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눈맞춤을 피한다.
- 19. \_\_\_\_ 불안 때문이 아니라 단지 눈맞춤이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에 눈맞춤을 피한다.
- 20. \_\_\_\_ 눈맞춤을 할 때 나는 내 스스로를 의식하는 것을 느낀다.
- 21. \_\_\_\_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많이 응시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한다.
- 22. \_\_\_\_ 나는 얼마나 눈맞춤을 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 23. \_\_\_\_ 눈맞춤은 내 사회적 관계와 업무 관계에서 중요하다.

(만약 눈맞춤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다음 빈칸에 체크를 하시고 아래 항목 평가를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_\_\_\_ )

눈맞춤에 불안을 느끼거나 눈맞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면 다음 항목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 24. 내가 처음 눈맞춤에 불안을 느꼈거나 눈맞춤을 회피한 나이: \_\_\_\_ 세
- 25. 눈맞춤과 관련한 나의 현재 불안과 회피는:
  - 0. 내 어린 시절 보다 더 나빠졌다.
  - 1. 내 어린 시절과 차이 없다.
  - 2. 내 어린 시절 보다 약간 나아졌다.
  - 3. 내 어린 시절 보다 제법 나아졌다.
  - 4. 내 어린 시절 보다 매우 나아졌다.